

태양광 사업 동력... 삼성물산 상사부문, 실적상승 기대감

지난 4분기 호실적 '반등 조짐'
2분기 매출액 11.6조, 9% 증가
영업익 7884억, 2% 상승 전망
파이프라인 16.2GW 규모 확보
연내 총 20GW 규모 확대 예정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태양광 산업을 동력 삼아 2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상사부문은 지난해 연간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4분기부터 호실적을 받아들이면서 반등의 조짐을 보여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7%가량 상승한 5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 결기준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36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익률은 2.7%로 오히려 전년 대비 0.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삼성물산

7%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양광 개발 사업의 기여가 크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변동성 높은 경제 환경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보다 그 하락 폭이 덜해 개선된 수익성을 보였다. 전분기 대비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49.1% 증가했다.

연간 부문과 달리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기준 실적이 호조를 보인 요인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꼽힌다. 신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던 태양광 개발

사업이 본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물산의 성장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측에서도 삼성물산의 2분기 매출액이 11조5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884억원으로 2% 늘어나며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사부문은 전통적인 트레이딩(중계 무역) 업무에서 벗어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 사업으로 미래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그린필드(초기)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 연결 조사 후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발전소 착공 이전까지 사업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 '태양광 사업권'이라는 일종의 무형 자산을 수익화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선진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심과 투자가 많고, 관련 제도

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이 분야에서 첫 매각이익(2200만달러)을 거뒀고, 2022년 4800만달러, 2023년 5800만달러 등 연평균 70%에 달하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미국에서 거둔 누적 매각이익은 1억28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은 현재 총 16.2GW(기가와트)의 태양광 개발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4.9GW, 호주 1.3GW다. 올해 말까지 총 20GW 규모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사업 지역을 기존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독일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향후 태양광 사업권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 전략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T, 韓 AI역량 결집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美 실리콘밸리서 '유나이티드 2024'
파트너사 확대, AI생태계 활기 기대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AI 유망 기업들의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은 K-AI 얼라이언스의 연례 행사 '유나이티드 2024'를 지난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고, 국내 AI 역량 결집을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행사는 지난해 6월 이후 두번째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를 비롯해 15개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유나이티드 행사에선 참가 기업 모두가 대한민국 AI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키기 위해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K-AI 얼라이언스는 공유·협력·



유영상(왼쪽 여섯번째)SK텔레콤 사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AI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2024' 행사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하고, 얼라이언스에 관심있는 AI 기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AI기업들의 규모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파트너사 협업체를 통해 기술과 사업 협력 관점에서 파트너사 확대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파트너사간 협업 구조 고도화와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결집된 AI 역량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에도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래블업과 XL8 등 AI 테크 기업 2곳이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초창기 7개사였던 파트너사 규모는 18개사로 확대됐다.

래블업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GPU 및 AI 컴퓨팅 효율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독자 개발 기술로 한·미·일 특허를 보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XL8은 AI 기반 자막·번역·더빙을 제공하는 솔루션 미디어캐스트와 실시간 통역용 AI 솔루션 '이벤트캐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디어 특화 AI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AI 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패널 토의도 진행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한인 벤처투자자(VC) 프라이머사제와 최근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 AI기업 업스타이지가 참석해 K-AI 생태계 확대와 스타트업 연합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강연과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무빙스타일 출시 8개월 국내 누적판매 5만대

삼성전자는 이동식 스마트모니터 '무빙스타일'이 출시 8개월 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무빙스타일은 훈수·이사 고객이 집중되는 5월 한 달에만 1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훈수·이사 고객이 전체 '무빙스타일' 구매의 30%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 모니터와 비교해 20~30대 여성 고객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삼성전자스마트모니터에 무빙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한 이동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페이 해외여행 일정 등록하면 이용경비의 10% 페이백

네이버페이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을 등록한 뒤 여행비를 줄이는 '해외여행 10% 아끼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모션 페이지에 본인의 해외여행 일정을 등록하면 여행지에서 받을 수 있는 네이버페이 결제혜택과 해외여행 보험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네이버페이 QR결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네이버페이 해외여행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보험을 들면 이용금액의 10%(최대 3만원)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포인트 혜택은 별도의 신청없이 결제일 익월 내에 자동으로 제공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LG유플러스, IPTV에 '온디바이스 AI' 적용

자막 시인성 개선, 음질개선 기능 개발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인 U+tv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익시(ixi)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와의 통신 과정 없이 기기 내에서 AI가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구동되는 AI에 비해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초개인화 콘텐츠 추천, 자막 및 음질 개선 등 IPTV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초개인화' 기능을 선보인다. 초개인화된 U+tv는 고객의 시청 이력을 온디바이스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IPTV 홈 화면에 반영해 보여준다.

예컨대 평소 무료 영화 VOD를 즐겨 시청하는 고객은 눈에 가장 잘 띄는 홈 화면 상단에 AI가 추천하는 무료 영화 VOD 목록이 나타나게 된다. 시청 이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홈 화면을 통해 콘텐츠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영상 속 자막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자동으로 음질을 개선해 주는 기능도 개발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영상 속 자막과 한글 자막이 겹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한글 자막의 위치를 변경해 가독성을 높인다. 또한 VO D를 배속으로 빠르게 시청하는 경우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 문제를 자동으로 개선해 고객들의 시청 경험을 개선했다.

이같은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고도화된 IPTV 서비스는 최신 셋톱박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기기 교체 등 번



LG유플러스 모델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고도화된 U+tv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거로운 작업 없이 온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U+tv에 도입된 익시 기반의 AI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인 익시젠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